

동국대학교일산병원 News Letter

함께 나누는 행복한 이야기

01 2016 러시아 제4회 국제 태평양 신경학 교실 참가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국제진료사업과 관련하여 10월 7일부터 9일까지 러시아 Nevron병원이 주최한 제4회 국제 태평양 신경학 교실 행사에 참가했다.

이번 행사에서 본원은 현지 의사들과 함께 Master calss를 진행했으며, 신경과 박정이 교수와 한방체질의학과 배효상 교수는 현지 환자들을 대상으로 서로의 의견을 나누며 진료를 진행했다. 또한, 신경과 질환뿐 만이 아닌 외상 후 장애, 척추 질환 등에 대해서도 현지 의사들과 교류를 통해 새로운 외국인 환자 유치 경로도 개척했다.

50여 명의 다양한 소속의 현지 의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경과 박정이 교수는 근육긴장이상(Dystonia)과 관련된 자료를 발표했으며, 한방체질의학과 배효상 교수는 다발성 근염에 대한 한방적 치료를 주제로 발표했다.

특히, 한국뿐만 아니라 러시아에서도 희귀질환에 대해 소개하고 현지 의사들과 의견을 나누면서 한국의 큰 관심을 직접 받을 수 있었으며,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의 특화인 양·한방 협진 프로그램 등도 큰 관심을 받았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지속적으로 높은 품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제병원으로서 위상을 더욱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02 교직원 불자회 연우회, 의정부 송산노인종합복지관 의료봉사 펼쳐

교직원 불자회 연우회는 10월 17일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경기도 의정부시 소재의 송산노인종합 복지관에서 의료봉사를 펼쳤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증휘 스님을 비롯하여 신경외과 김병철 교수, 재활의학과 전공의, 한방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등 총 23명의 교직원이 참여했다.

송산노인복지관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사회복지를 실천하며, 모든 행동의 근본을 효(孝)에 두며, 효(孝)를 실천하는 마음과 자비로운 생활에 목표를 두고 어르신들을 섬기는데 최선을 다하는 복지관이다.

이번 봉사 활동은 병원을 찾기 어려운 복지관 어르신들의 편의를 위해 평일 오후에 이루어졌으며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더 소중한 봉사가 되었다.



03 원무팀 공휴일 입원수속창구 운영

원무팀에서는 환자들의 편의와 원활한 입원 수속을 위해 공휴일에도 입원 수속 창구를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현재는 공휴일에 입원을 하는 경우 응급 원무팀에서 입원 수속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어 내원객들에게 불편함이 컸다. 원무팀은 공휴일 입원 수속 창구 운영을 최대화하여 환자들의 원활한 입원 수속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응급실 이용객들은 혼잡한 창구에서 불편함이 다소 해결될 전망이다.

시행일은 10월 16일이며 환자들의 입원이 집중되는 시간을 중심으로 탄력 운영될 방침이며 위치는 기존 입원 수속이 진행되는 31번 창구이다.

04 병동간호팀 훈훈한 'Hope day'

병동간호팀은 지난 10월 13일 간호사들의 Cheer up을 통해 조직에 대한 소속감 강화와 만족도 향상을 위한 '더 Best 병동간호팀 HOPE & HOF Party'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올해 들어 환자 중증도가 올라가면서 간호사들의 업무 강도가 높아졌고, 인력 부족으로 고생한 간호사들을 격려해 주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간호부장 및 간호부 각 팀장이 참여해 간호사들과 함께 서로 격려하고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며 자유로운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간호사는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많은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 있는 유쾌하고 즐거운 시간이었다."라고 소감을 말했으며 "에너지 충전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준 간호부와 병원에 감사하다."라며 마음을 전했다.



고객의 소리

친절하고 따뜻한 72병동 간호사 선생님들~

72병동 간호사 선생님들 4박 5일 동안 치료 잘 받고 갑니다. 3교대로 피곤하고 바쁜 근무환경에서도 항상 웃음 잃지 않고 응대해 주셔서 치료받는 입장에서 매우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희 아이는 태어난지 40일째 되는 날부터 잦은 질병으로 동국대일산병원에 입원하게 됐고, 부득이하게 다른 가정과 달리 엄마가 아닌 아빠가 아기 곁을 지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입원해 있는 동안 간호사님들은 직접 분유도 먹여주시고 안아서 재워주며 극진한 보살핌으로 잘 대해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했습니다. 한 분 한 분의 성함은 모르지만 어떤 분에게 질문을 해도 모두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저도 임상간호사로 근무해본 경험이 있어서 간호사가 얼마나 힘든 직업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아이가 건강하여 아프지 않고 병원에 오지 않는 것이 제일 좋겠지만 오게 된다면 다시 따뜻한 마음을 가진 동국대일산병원을 찾고 싶습니다. 매일매일 피곤하고 힘드실 텐데 힘내세요. 감사하고 고맙습니다.